

# 뚝! 뚝!

오랜만에 조선대학교를 찾은 사람들은 달라진 캠퍼스를 보고 놀란다. 먼지 날리던 운동장은 사철 파란 인조잔디가 깔려있고 아름다운 장미원과 활짝 핀 벚꽃길은 도심속 공원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조선대의 변화는 비단 외양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에 따라 지방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선대는 올해 모집정원(4천840명)을 100% 선발했다.

소통능력을 갖추기 위해 외국인

W



자연과 조화를 이룬 조선대학교 캠퍼스(오른쪽),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조선대학교 전호중 총장(좌측 사진 좌에서 두번째).



## 창조의 중심, 지역의 희망, 미래의 리더

### 동북아 중심대학으로 준비하는 조선대학교



영어소통능력을 갖추기 위해 외국인 교수가 직접 강의를 한다.

등급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4년간 전액 면제, 해외연수지원, 교재비 지원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모든 장학생이 원어민에 버금가는 영어소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외국인 교수가 직접 가르치는 맞춤형 교육과정인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신입생 모집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글로벌학과·기초과학부·자유전공학부 등을 신설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다.

#### △ '세계시민' 양성하는 NICE 인증제

조선대는 일찌감치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일을 시작했다. 지난 2001년 도입한 NICE(New International Chosun Education) 인증제는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준비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계'를 의미한다.

정규 교과과정에서 국제화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해외캠퍼스 △해외인턴십 △해외체험연구 △국제봉사 △한국문화체험 △일일 본/중국 Study Tour △외국대학 교류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NICE 인증서를 수여한다.

특히 미국, 뉴질랜드, 호주에 개설된 해외캠퍼스는 휴학하지 않고 학업 취득이 가능하며 현지 교육비를 전액 학교에서 지원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에도 해외캠퍼스 개설을 협의 중이다. 일본 와세다 대학을 비롯한 세계 17개 대학에 해마다 60여명의 학생들을 교환학생으로 파견하고 4개 대학과 복수취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132억 5천만 원의 외부연구비를 수주한데 이어 올 들어 206억 5천만 원을 수주하여 연구역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즉 교과부가 대학 교육역량 제고의 핵심 지표로 구성된 포를러를 통한 성과중심 재정지원(Formula Funding)을 위해 선정한 '2009년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57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국 사립대학 중 1위, 전국 4년제 대학 중 4위를 기록했으며



광각렌즈로 잡은 조선대학교 전경.

지난해부터 언어교육원(원장 김재봉)에 영어교사 양성과정인 TESOL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며 국내 최초로 국립 호치민 인문사회과학 대학에 한글을 가르치는 조선대학교 세종 한국어 학당(학당장 안경환)을 개설해 성공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학문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을 내걸고 2001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 요강을 만들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135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조선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 △ 특성화와 국제사업 유치

조선대의 강점은 큰 사업에 강하다는 것이다. 2004년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D) 선정에서 5년 동안 540억원을 지원받는 전국 사립대학 가운데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했으며 2006년의 2단계 BK21사업에서도 총 10개 사업단(팀)이 7년 동안 172억원을 지원받아 수도권권을 제외한 지방사립종합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하여 연구중심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탄탄하게 굳혔다.

2008년 132억 5천만 원의 외부연구비를 수주한데 이어 올 들어 206억 5천만 원을 수주하여 연구역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즉 교과부가 대학 교육역량 제고의 핵심 지표로 구성된 포를러를 통한 성과중심 재정지원(Formula Funding)을 위해 선정한 '2009년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57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국 사립대학 중 1위, 전국 4년제 대학 중 4위를 기록했으며

2009년 지역연구고산업육성사업(RIS)에서 28억 8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2009년 상반기 이공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사업에서 55개 과제에 59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수주했다. 2008년 9월 기초과학연구원센터에 선정된 노인구장질량계연구센터(센터장 윤정훈)는 9년 동안 6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김시욱 교수(공과대학 환경공학과)는 '유해조류 제어 위한 바이오나노 캡시드제조 및 탑재 용합기술 개발' 과제가 미래융합기술 파이오니아 사업에 선정돼 6년 동안 60억원을 지원받는다.

지식경제부가 시행하는 2009년도 '지역개발 특성화대학' 사업에 선정된 지원공학과는 5년 동안 35억원을 지원받아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했다. NURI 사업을 수행하는 학과는 풍부한 장학금과 학생들을 위한 해외연수, 자격증 취득 등의 혜택에 따라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대는 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따라 호남권 선도산업으로 추진되는 친환경부품소재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

또한 지역발전전략과의 연계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첨단부품소재 △생명공학 △문화정보 △에너지 자원·환경 △언어기반연구 등 5개 분야별 특성화 추진기획단을 지역특화산업 및 21세기 유망산업분야,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반계획,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해양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등과 관련하여 특성화와 국제사업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 광주시민들의 도심공원-이름다운 캠퍼스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조선대학교는 거대한 도시공원이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황량하기 그지없던 조선대학교가 지금은 회색빛 도시에 활기와 생동감을 불어넣는 '도시의 허파'이자 '광주 시민들의 도심공원'으로 사랑받고 있다. 종합운동장은 파란 인조잔디가 깔린 축구장과 하키장이 들어서 사시시철 운동경기가 가능해졌다.

조선대학교는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캠퍼스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어 학생들의 정서 순화는 물론 광주시민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유니버시티 파크 사업을 시작했다.

빛고를 광주의 상징적 건축물인 조선대학교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의 이미지를 심겠다는 구상에 호응한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조성한 현수기금 60여억원을 투입해 사철 아름다운 꽃이 피

는 푸르른 캠퍼스를 조성했다. 조선대학교 캠퍼스 조성사업의 하이라이트는 장미원이다.

2003년 조성된 장미원은 광주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다.

해마다 장미축제가 열리는 5월이면 캠퍼스가 인파로 몸살을 앓을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장미원 조성의 주역인 전호중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친환경적인 캠퍼스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아름답고 편리한 캠퍼스 조성'은 조선대학교 장기발전계획 2015에 제시된 7대 경영방침 중의 하나이다.

이 계획에 따라 장미원을 증설했고 본관 건물 도장공사를 마쳤으며 정문에서 본관에 이르는 교내도로를 전면 재포장했다.

장미원은 지난해 6월부터 증설공사에 들어가 면적이 8,299㎡로 늘어났으며 장미 품종 및 수량도 227종 17,994주로 더욱 다양해져 훨씬 넓고 아름다운 조선대학교의 독창적인 랜드마크로 거듭났다.

1951년 건립돼 오랜 세월 동안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해온 본관 건물은 학교시설로서 지니고 있는 지역적인 상징성과 역사성을 인정받아 2004년 9월 4일 등록문화재 제94호로 지정됐다. 이 본관 건물은 최근 아간조명 공사를 완료하여 밤에도 찬란하게 빛난다.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우러진 조선대학교 캠퍼스는 그 자체가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되는 문화창조 혁신의 모체로 거듭나고 있다.

#### △ 대학취업지원 시스템 성공모델 창출 박차

조선대는 지난해 취업지원본부를 종합인력개발본부(본부장 정운관)로 새롭게 개편하고 대학취업지원 시스템 구축의 성공모델을 창출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학생들은 1학년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한다.

1학년은 자기탐색, 2학년은 직업이해 및 진로결정, 3학년은 능력 개발, 4학년은 취업실천으로 '성공취업'을 달성한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을 적극 장려하고 취업마인드 제고를 위해 분아별 집중프로그램, 진로교육 등 취업교육과목 확대운영,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및 성공중소기업 CEO특강 등 다양한 취업강좌 개설, 운영을 통해 취업능력을 배양시킨다.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취업정보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활용한 취업준비반의 확대운영, 기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취업정보교수, 취업자문위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취업 지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올해는 '성공 취업을 위한 맞춤형 신규 프로젝트'로 CS(Customer Satisfaction) 전문가 과정, 스키치 및 프리젠테이션 과정, 직무과정을 신설했으며 특히 학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학생 취업 향상을 위해 '여학생 특화 취업교육'을 강화했다. 종합인력개발본부는 유기적인 진로지도 및 체계적인 취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2009년 취업률 65%를 달성할 계획이다.

한승훈 기자 swnar@edunhap.com



멀리서 보이는 건물이 등록문화재 제94호로 지정된 조선대학교 본관 건물. 이 건물은 1950년대 당시의 건축양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광주시에 연인들의 명소 - 20여종의 장미로 만든 장미정원